

신탄리~철원 열차 60년 만에 달린다

오늘 경원선 5.6km 단선 개통 백마고지역 신설 ... 남북철도 연결사업 초석 구축

6·25전쟁 이후 끊겼던 경원선 신탄리~철원 구간 열차가 60년 만에 다시 달린다.

철원군은 20일 오후 2시 철원을 대마리 백마고지역 광장에서 경원선 신탄리~백마고지역(철원) 5.6km 단선 개통식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개통식에 앞서 상행열차는 오전 7시52분 백마고지역에서, 하행열

차는 동두천에서 오전 6시50분 첫 운행을 시작한다. 열차는 상·하행선 하루 9차례 운행하며 막차는 상행선 오후 8시52분, 하행선 오후 7시50분이다. 요금은 신탄리역과 동일하다.

경원선 신탄리~백마고지역을 잇는 5.6km 구간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7년 12월 착공, 477억원을 들여 5년 만에 공사를 끝냈다.

당초 민간인통제구역(민통선) 안에 있는 철원역까지 복원하려 했으나 군부대 통제구역 등 여러 사정으로 800m 못 미친 백마고지역을 신설해 공사를 끝냈다. 지역주민들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동송농협 풍물패와 연천 시물놀이팀의 식전 공연으로 경원선 개통을 축하한다.

철도공단 및 군 관계자는 “백마고

지역 개통으로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한몫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엇보다 앞으로 추진 될 남북철도 연결사업의 초석을 구축하게 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했다.

경원선은 1914년 8월 용산~원산 구간(223.7km)에 개통됐으나 한국전쟁으로 폐허화되면서 비무장지대(DMZ) 인근 31km 구간은 현재까지 끊겨 있다. 철원=이정국기자

평창동계올림픽 사업 향토기업 참여 보장돼야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도내 중소기업 60% 이상이 올림픽에 대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지역경제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한 올림픽인지를 되물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 아닌가. 애써 준비하는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담보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여서 정책 당국자들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요구된다.

강원일보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10년 이상 된 향토기업 130곳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기업이 낙담하고 있음이 여실히 나타났다.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인 63.8%가 ‘동계올림픽이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동계올림픽 공사의 수혜업종으로 꼽히는 건설업에서도 절반이 넘는 54.7%가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동계올림픽은 도의 성장 동력, 지역발전의 촉매로 삼고자 개최하는 것이다. 그 방안이 향토기업에게 공사·납품 기회 제공

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라면 안방에 차려놓은 밥상을 타 지역 기업들이 차지할 형국이다. 부당함을 알고 있는 정부 당국자들은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배려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답답하게 한다. 이런 경우가 초래될 것을 우려해 우리는 그간 지역 업체 참여 방안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고사하고 시행령에조차 반영되지 않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동계올림픽이 도움이 되려면 사전에 어떤 점이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지역 중소기업 우대 정책 마련’을 내세웠다. 도는 당장 내년 부터 동계올림픽 준비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초긴축’ 재정이 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지역 업체의 사업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동계올림픽에 쓰이는 것이다. 향토기업들이 이를 바라만 보아 한다면 정의사회, 경제민주화에 배치되는 것이다. 내년 특별법 개정 때는 반드시 향토기업 참여 기회 확대가 명시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올림픽·전국체전서 강원체육 빛났다”

도체육회 강원체육상 7개 부문 수상자·팀 선정 ... 28일 강원체육회관에서 시상식

강원체육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2012 제31회 강원체육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도체육회는 최근 법제·상벌위원회를 열고 강원체육상 7개 부문 수상자 및 팀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원체육상은 올 한 해 강원체육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에게 주는 상이다.

올해 영광의 수상자는 경기단체장 부문에 김래선 도레슬링협회장, 자치단체장 부문에 박선규 영월군수, 교육기관장 부문에 이원용 강원사대 부교과장, 실무이사 부문에 이춘섭 도축구협회 전무이사 등이다.

또 경기지도자 부문에 최선근 도청 마라톤팀 감독, 우수선수 개인 부문에 조관훈 도청 수영(다이빙)선수, 우수선수 단체 부문에 동해시청 사격팀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래선 회장은 2005년 회장에 취임한 이후 도레슬링 발전은 물론 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으로 전국체전 중위권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올해는 런던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선전할 수 있도록 포상금 1억원을 약속하면서 도 출신 김현우가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김래선 회장 ◇박선규 군수 ◇이원용 교장 ◇이춘섭 전무



◇최선근 감독 ◇동해시청 사격팀 ◇조관훈 선수

박선규 군수는 민선 4·5기 군수를 역임하는 동안 체육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육상과 씨름부를 창단, 엘리트 체육 진흥으로 지방체육 발전을 이끌었다. 또 체육 인프라 구축으로 올해 30개 대회를 유치,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이원용 교장은 지난해 강원사대 부교과장 부임 후 사격 태권도 농구 종목에 헌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전국체전에서는 사격 단체와 개인에서 금메달을 따는 쾌거를 거뒀다. 이 교장은 종목 계열화로 학교

체육 명문고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춘섭 전무는 2009년부터 전무이사를 수행하면서 지난해 남고부 추구가 전국체전을 제패한 데 이어 올해 체전에서는 남자일반부가 우승해 추구가 전국에서 중상위권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또 행정실 무이사로서 통일대기여자축구 등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한 점도 인정받았다.

최선근 감독은 2006년부터 팀 지휘봉을 잡으면서 지난해 전국체전에

서 금 1개, 은 1개, 동 1개 등을 획득했으며 올해는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를 따내며 강원육상 발전에 건인차 역할을 했다. 특히 도육련 실무부회장으로 활동 중인 최 감독은 도 대표들의 동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올해 체전 전, 중적으로 함께 고지대 전지 훈련을 다녀오는 등 선수지도에 열정을 보이고 있다.

중학교 때부터 다이빙을 시작한 조관훈은 강원체고 졸업 후 2002년부터 도청 다이빙선수로 활약, 올해 체전에서 금3, 은 1, 동 1개의 메달을 땀다. 그는 고교 때부터 올해까지 전국체전에서 모두 21개의 금메달을 획득, 강원수영 발전에 기여했다.

동해시청 사격팀은 2005년 창단했으며 올해 전국체전에서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 동메달을 따며 우수한 팀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올해 우수선수 영입으로 강원 사격이 전국체전에서 종합 5위를 차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강원체육상 시상식은 오는 28일 오후 5시 강원체육회관 그랜드홀에서 열리는 2012 전국체전 유공자 시상식과 함께 펼쳐진다.

김보경기자 bkk@kwnews.co.kr

국회의정연수원 고성 건립된다

고성군·국회사무처 협력의정서 체결

국회사무처와 고성군이 국회의정연수원 고성 건립사업을 위한 협력의정서를 체결, 사업이 가시화됐다.

국회사무처와 고성군은 19일 오후 국회사무처에서 윤원중 국회사무총장, 황종국 고성군수, 황상연 고성군의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정연수원 건립에 관한 협력의정서'를 체결했다.

▶ 관련사진 19면

협력의정서에 따르면 △국회 의정

연수원 건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양기관의 상호 긴밀한 협력 구축 △협력의정서의 내용 성실 이행과 상대방의 편의 최우선 고려 및 적극 협력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 일대(43만 5122㎡) 교육 및 숙박시설을 갖춘 국회 의정연수원 조기 착공과 차질없는 완공을 위한 최선의 노력·고성군은 올해 내에 고성군 소유 부지(39만 8395㎡)매수 완료 △연수원 건립과 관련한 정보의 비밀 유지 △양 기관의 대표가 바뀔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 협력의정서의 유효 △서명, 합의 한 협력의정서의 효력 지속 등 6개 항목을 담았다.

한편 강창희 국회의장은 20일 오

후 고성군 토성면에 위치한 국회의정연수원 부지를 시찰하고 현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강 의장의 이날 방문은 협력의정서 체결에 이어 실시되는 것이어서 지역사회에서는 국회 차원의 강력한 지원 의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황 군수는 "이번 협력의정서 체결은 양측이 '연수원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표명하는 것"이라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고성/남진천 jcnam@kado.net

강원 체육 빛낸 인물 7인 선정



김래선 회장 박선규 영월군수 이원용 교장 이춘섭 전무이사 최선근 감독 조관훈 선수

2012년 강원체육을 빛낸 제31회 강원체육상 부문별 수상자가 선정됐다.

도체육회는 최근 강원체육회관 3층 회의실에서 '2012 법제·상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기단체장상에 김래선 도레슬링협회장을 선정하는 등 7부문에 대한 수상자를 심의·선정했다.

경기단체장상에 선정된 김래선 회장은 지난 10월 열린 제93회 전국체전에서 도레슬링협회가 금3·은1·동12개 등 1128점을 획득, 시·도 종목별 종합순위 9위의 성적을 올려 도선수단이 9위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지난 2005년부터 회장직을 맡아 연 2500여 만원 등 폭넓은 경제적 지원으로 강원레슬링이 크게 발전하는데 공헌한 점도 인정됐다.

자치단체장상은 올해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3개와 동메달 1개 등 총 4개의 메달을 획득하고 씨름 실업팀 육성을 통해 강원체육 기반조성에 기여한 박선규 영월군수에게 돌아갔다.

교육기관장상은 올해 전국체전

경기단체장 김래선

자치단체장 박선규

교육기관장 이원용

경기단체실무이사 이춘섭

경기지도자 최선근

우수 개인 조관훈

우수 단체 동해시청 사격팀

에서 사격 남고부 공기권총 개인전과 단체전을 휩쓴 강원사대부고의 이원용 교장이 선정됐다.

경기단체실무이사상은 제93회 전국체전 축구 일반부에서 6년만에 우승을 차지, 강원축구의 위용을 떨친 이춘섭 도축구협회 전무이사가 선정됐다.

경기지도자상은 올해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한 강원도청 육상팀의 최선근 감독이 주인공이 됐다.

우수선수 개인상은 전국체전 수영 다이빙에서 금3·은1·동1 등 총 다섯개의 메달을 목에 건 강원도청



동해시청 사격팀

의 조관훈 선수가, 우수선수 단체는 올해 전국체전에서 배점이 높은 사격 단체전에서 금빛총성을 울리며 도선수단에 소중한 금메달을 선물한 동해시청 사격팀이 선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함께 각각 200만원씩의 상금이 주어지며 시상식은 오는 28일 강원체육회관에서 열리는 '2012 전국체전 유공자 및 제31회 강원체육상 시상식' 행사에서 거행된다.

임호순 도체육회 상별위원장은 "많은 후보들을 대상으로 심사위원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결정했다"며 "모든 강원체육인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수상자를 선정하게 돼 기쁘며 강원체육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주석